

[제4회 대한민국시민연극제 본선 심사총평]

<대한민국시민연극제>는 연극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창작활동을 통한 소통과 교류, 이해와 화합의 장을 만들어 시민들의 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삶의 질을 더 높여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.

대한민국시민연극제 인천은 시민 연극인들과 예술인 그리고 관객이 함께 펼친 그야말로 대한민국 전역을 아우르는 시민들의 축제였습니다.

1차 심사를 거친 총 8편의 선정 작품들은 다양한 지역, 다채로운 주제, 풍요로운 볼거리로 관객에게 큰 박수와 호응을 얻은 연극제였습니다.

연극의 사회적 가치, 우리 사회의 공동체적 문제, 현대인들의 삶의 고뇌, 지역 콘텐츠를 활용한 다양한 소재 등 매우 다각적인 시각에서 우리들의 삶을 조명하고 무대형상화 하여 관객들에게 공감대와 큰 감동을 선사하였습니다.

비록 무대 언어 및 연극 미학이 아직은 낯설고 어색한 지점도 있었으나 시민 연극인들의 개개인의 연기 기량이 눈부시게 발전했다는 점이 고무적이었으며 무엇보다도 연극을 즐기며 무대에서 행복해하는 모습의 흔적이 깊은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. 바로 이런 모습이 시민연극을 하는 참 이유이지 않을까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.

심사 과정은 연기와 앙상블(30), 공연의 완성도(30), 작품의 창의성(15), 관객 호응 및 대중성(15) 참가 요강 준수 의무(10)를 바탕으로 공정하게 평가하였습니다. 특히 연기상 부분은 역량이 탁월한 분들이 많아 선정에 있어 깊은 고민이 있었음을 밝힙니다.

<제4회 대한민국시민연극제 인천> 작품상 수상 단체 및 개인상을 수상한 모든 분께는 축하를, 아쉽게 수상권에 들지 못한 단체와 시민연극인 분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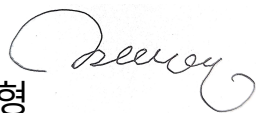
시민연극인 여러분, 연극을 통해 앞으로도 더욱 즐겁고 행복한 삶이 펼쳐지길 기원합니다.

2025년 7월 27일

제4회 대한민국시민연극제 본선 심사위원단

김도형, 손민목, 문종근

김도형



손민목



문종근

